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비즈니스를 위한 역사상식



일상생활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비즈니스를 위한 역사상식' - 20여 년간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 풍속, 인물 등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수씨의 신간이다. 직장인이 겪을 수 있는 비즈니스 상황별로 역사·문화·교양에 관한 지식들을 엄선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관계가 무르익을 때까지 비즈니스 단계별로 나누고, 그 아래를 다시 8개의 상황별로 나눴다. 각 장의 시작 부분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배치하고, 그 에피소드 안에서 언급된 비즈니스 키워드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또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관련 팁과 에티켓을 함께 담았다.

러나 뒤쪽 상황을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화장대 앞에서 얼굴을 매만지는 아내의 모습 뒤에 자신이 있는 상황을 착안해, 자동차 유리창 위에 8×20cm 크기의 거울을 달았다. 레이 하룬은 평균 시속 120.06km, 총 6시간 42분 8초로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세계 최초로

악수는 왜 오른손으로 할까? 정답은 무기가 없다는 뜻으로 오른손으

사람들은 왜 악수를 할까?

로 서로의 손을 잡는다. 싸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는 우호의 표시를 나타낸다. 악수가 자리를 잡은 것은 19세기 이후였다. 그 이전까지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아니면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 조금 안다고 악수를 청하면 결례로 여겼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악수를 보편적인 인사방법으로 퍼뜨린 것은 누구일까? 바로 퀘이커(Quaker)교도들이었다. 기독교의 한 일파인 퀘이커파는 평화와 평등의 상징으로 악수를 했다. 이후 미국에서 퀘이커 교세가 확장되면서 악수 또한 미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 나갔다.

백미러를 달았다는 기록을 세웠다. 백미러의 정확한 영어 표현은 리어뷰 미러(rear view mirror)다.

폭탄주의 원조는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다. 19세기 탄광과 부두 노동자들이 빨리 취하려고, 술을 섞어 마신 것이 시작이다. 맥주를 섞은 위스키를 보일러 메이커(boiler·maker)라고 한다. 온몸을 휘기로 달아오르게 하는 술이라는 뜻이다. 그 당시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맥주를 먼저 마시고, 이어 양주를 잇달아 마시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큰 맥주잔에 작은 위스키 잔을 넣어 섞어 마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이다. 조선시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1837년에 간행된 <양주방>에 따르면, 따뜻한 막걸리 한 사발에 소주 잔을 부어, 혼돈주(混沌酒)라고 불렀다. 이때 넣은 소주가 붉은색이면 자중홍(自中紅)이라고 했다. 현대 폭탄주의 원산지는 춘천이다. 1983년 당시 박희태 춘천지검 검사장이 지역의 검찰·경찰·안기부·군인·언론사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맥주잔에 위스키를 떨어뜨려 마셨다. 이를 폭탄주라고 불렀고, 이후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고 한다.

비즈니스를 위한 역사상식 | 박영수 지음 | 이수발 펴냄 | 1만3800원

진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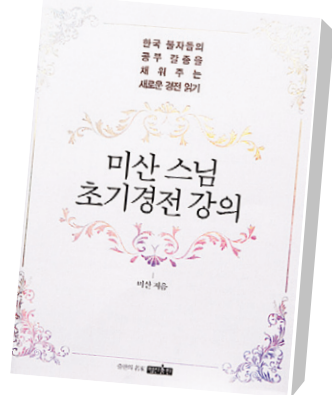
미산 스님 · 차차석 · 김호귀 교수

‘초기경전’ ‘법화경’ ‘금강경 약소’ 풀이

불교에는 방대한 양의 경전이 있다. 그래서 ‘많다’는 것을 강조해 ‘팔만 사천경전’이라고도 표현한다. 불교의 핵심사상을 담은 주요 경전들은 스님·불교학자들에게 의해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불자들에게 널리 읽힌다. 불교계 세 학자가 펴낸 <다시 읽는 법화경> <미산 스님 초기경전 강의> <금강경 약소>도 이들 중 하나다.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학과)가 펴낸 <다시 읽는 법화경>은 <법화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던 기존의 입문서에 그치지 않고 천태지의 선사 등의 법화사상가들과 저자의 해설을 더해 이해를 도왔다.

<법화경> 제3 비유품 ‘부처님은 증생의 아버지다’에서 “...저희들은 오늘에야 부처님의 참된 자식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났으며...”의 구절이 있다. 차차석 교수는 그가 펴낸 책에서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운허 스님 역본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듣고 귀의했으며’라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천태의 해석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천태가 활동하던 당시의 중국인들은 인도의 풍속과 문화에 대해 오늘날과 같이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어 차교



수는 “때문에 ‘사람이 입에서 태어난다’는 구절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고민한 결과 입에서 태어난다는 문장을 ‘가르침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구생(口生)’이라 이해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이라 인식했다. 매우 신앙적이면서도 절묘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계급 타파를 위해 설해진 것이라는 경전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차 교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신앙적·사회적 체계를 소개하며 각 품의 구절의 이해를 돕고 있다. 차차석 교수는 “<법화경>은 인도에서 편집된 경전이다. 따라서 경전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

도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에 더해 중국의 가라성 같은 법화사상가들의 해설을 듣게 된다면 <법화경>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상도선원에서 매주 팔정도 법회를 여는 선원장 미산 스님은 팔정도에서도 정견(正見), 즉 바른 견해를 중요시 여긴다. 스님은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제대로 된 등산로가 아닌 길로 아무리 땀 흘리며 열심히 걸어가도 결국 정상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초기경전 공부의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초기경전은 부처님의 원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초기경전은 재해석이나 가공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처님

말씀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다. <미산 스님 초기경전 강의>는 상도선원 경전학당에서 진행한 강연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연기법과 일체법, 삼법인, 사성제 등 초기경전 안에 담긴 불교의 4가지 핵심교리가 총 8장에 걸쳐 펼쳐진다.

미산 스님은 “간혹 선·위빠사나 수행을 하던 효과적으로 하려면 수행의 경전적 근거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왜 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호귀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금강경 약소>를 펴냈다. 당나라 지상사의 지엄이 보리유지(菩提留支) 한역본에 의거해 그 형식과 내용에 해석을 가한 <금강반아바라밀경약소(金剛般若波羅蜜經略疏)>를 통해 <금강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했다.

다시 읽는 법화경 | 차차석 지음 | 조계종 출판사 펴냄 | 1만6000원

미산 스님 초기경전 강의 | 미산 지음 | 명진출판 펴냄 | 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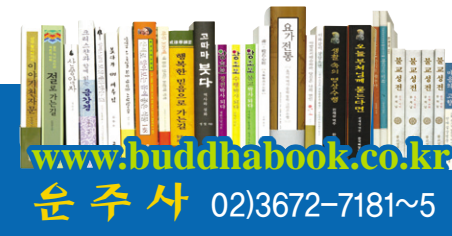
금강경 약소 | 김호귀 지음 | 이담 펴냄 | 1만4000원

이어나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top 10 Buddhist books.

\*불서출판 윤주사 제공 (02)3672-7181



49재 그 속에 깃든 해탈법

죽음 이후, 중음의 실상과 천도법 일러쥬

우리나라 불자들은 ‘천도재’는 귀에 익숙해도 ‘중음제도’는 아직 생소할 것이다. 또한 생전에 자신이 미리 닦고 간다는 예수재(豫修齋)는 알아도, 자신이 생전에 미리 죽음-중음-전세(轉世)의 과정을 이해하고 닦아 사후의 중음에서 자신이 자신을 구제하고 해탈하는 방법에 대한생 생소하다.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는 <티베트 사자의 서>로 잘 알려진 <중음제도경>, 즉 사후세계, 중음세계의 실상과 천도법을 일러놓은 책이다. 편역자는 전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범성 스님.

티베트불교에서는 중음을 전후한 시기의 해탈 방법을 세 단계로 나누는

데, 첫 단계에서는 임종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방원을 하게 된다. 중음의 징후가 나타나면 망자의 중음, 즉 의생신 혹은 망령이 좋은 곳으로 전생하게 하기 위해 <중음제도경>을 독송한다.

범성 스님은 <중음제도경>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역주하고, 중음세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망자 천도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범성 스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된 기도와 천도에도 불구하고 중음의 경계에서 해탈하지 못했을 경우 조급이라도 나온 세상과 환경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경책 내용과 불보살의 기도를 위한 계송 등도 수록하고 있다.

범성 스님은 “중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오늘 살아 있는 자는 내일 망자가 되고, 오늘 망자는 내일 다시 태어나 돌아온다”며 “망자가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인 49일 동안 어떻게 하면 윤회로부터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밝혀 놓은 것으로, 살아 있는 자나 망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 석범성 편역 | 윤주사 펴냄 | 8000원 이어나 기자

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books titled '실증설' and '방거사어록'.

Advertisement for '새는 지붕' (The Bird on the Roof)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about a book by Lee Kal-lang.

Advertisement for '민속죽염' (Folk Salt) featuring images of salt products and text about its health benefits.

Advertisement for '두리안' (Durian) featuring images of durian fruit and text about a sale at www.durianshop.com.